

남녀 청소년의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른 자아가치감*

이 영 미¹⁾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민 하 영²⁾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이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른 자아가치감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료조사는 서울경기지역 내 남녀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 총 4개 학교에서 중학생(184명)과 고등학생(181명), 남녀 36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청소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과 신체상,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자아가치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11.0 프로그램의 t검증, 상관분석,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지만 건강에 대한 지각은 여학생과 남학생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부모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청소년의 자아가치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청소년이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아가치감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청소년의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른 자아가치감의 설명력은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신체상이 자아에 대한 수용과 자기의 존재가치를 지각하는데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이 모두 자아가치감을 지각하는데서 의미 있는 변인이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외모신체상만이 의미 있고 건강신체상은 중요하게 지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신체상,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자아가치감

*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대구가톨릭대학교 김경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2) 교신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mhycd@hanmail.net)

I. 서론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느끼는 정도인 자아가치감은 목표 달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높은 자아가치감은 정해진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내적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느끼는 정도인 자아가치감은 자아존중감 발달에 기초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과 크게 구별됨 없이 유사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만큼 자아가치감은 자아존중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Crocker, Brook, & Niiya, 2006). 이러한 자아가치감은 목표 지향적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아정체를 통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과업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특히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가치감 확보가 생애 발달 단계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청소년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자원을 탐색함으로써 자아가치감 향상에 도움이 될 정보를 규명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 자원 중 하나로 신체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신체상은 자기개념 형성과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이 급격하고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이기에 신체상 지각은 청소년의 전반적 자기 지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의식의 중심이 되

고, 변화하는 신체의 비율, 새로운 감각은 때로 자신에 대한 안정감이나 적절감을 손상시키기도 한다(Rogers, 1985). 그런데 근래와 같이 외모가 중시되며 외모에 관한 고정적 기준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신체상은 청소년의 전반적 자아 수용이나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여 외모에 집착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리며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등학생 천육백여 명을 조사한 자료(한국여성민우회, 2006)에 의하면 10명 중 4명이 외모를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에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다수가 성형수술에 대해 그다지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및 외모와 관련해 이슈화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는 청소년의 자기수용이나 자아가치감 지각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고 그에 잇따라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손상을 유발하는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적 모습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심상이다(Luckmann & Sorensen, 1974). 이는 자신의 신념, 목표, 성격,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진다(Luckmann & Sorensen, 1974).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내적인 생각들은 그 개인의 감정, 사고와 관련되고 특정 상황에서 행동을 바꾸게 한다(Cash, Cash & Butters, 1983).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개인의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자신감을 없애고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관한 부정적 신체상은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

정적 정서 경험(박경애, 2002; 이영미, 2004; 정승교, 박종성, 1997; 조지숙, 1992)과 관련되고 자아존중감(박경애, 2002; 장귀현, 2002; 조지숙, 1992; Thompson, & Maurice, 1999)에 영향을 주며 식습관이나 행동, 신체활동 등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신체상이 긍정적인일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고 불안수준이 낮으며 자기노출에서의 어려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이계원, 1993) 신체상이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적응에서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여고생들의 경우 신체상이 긍정적일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았는데(장귀현, 2002) 신체상 중에서도 특히 외모 만족도가 자기 존중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체건강 및 재능, 신체변화와 개인차의 순으로 자기 존중감과 상관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만족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김아날리아, 200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아동 집단에 비해 청소년기에 외모만족 및 신체만족이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김경아, 2003)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춘기 이후, 특히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신체적 변화가 자기 지각에 있어서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심리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김경아, 2003). 이처럼 다수의 연구들은 신체상 지각이 개인의 정체성, 자존감, 자아가치감을 비롯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 태도, 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이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수용에서 의미있음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신체만족과 외모, 신체건강 및 기능 등이 각각 자기 평가

및 수용과 달리 관련될 것으로 시사된다. 따라서 신체상을 구분하여 자아가치감과 관련성을 검토한다면 자아가치감에 기여하는 신체상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상을 포함해 자기에 대한 지각은 많은 부분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통합되어 형성된다. 청소년의 자기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관점이 고려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와 가장 가까이에서 상호작용하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부모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견해를 통합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대하고 잘 도우며 인정을 해주고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해 줄수록 자녀가 자기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좋아했고 자신에 대해 만족했다(한중혜, 1996). 따라서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자아가치감 지각에 있어서도 의미 있게 작용할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향적 과정(Galvin & Brommel, 1986)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특성을 범주화한 연구(Barnes & Olson, 1982)에 의하면 가족 기능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이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억압받지 않고 자

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에 감정표현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스러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이고 문제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어 회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불신하며 의견교환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고선주, 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박숙희, 2004; 고아라, 2008; 신호식, 김근화, 2003; 이영숙, 김정옥, 2002), 자기효능감(신향숙, 장윤옥, 2001)과 긍정적 관계가 있고 긍정적 성향을 갖게 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모두 서로 연관되어 존재(이영숙, 김정옥, 2002)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청소년은 자기 지각과 관련해 긍정적 지지를 경험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한편 전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발달시기상 외모에 초점을 두게 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외부에서 제시되는 외모관련 기준이나 가치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체적 매력에 대한 기준은 청소년의 가족이나 또래, 사회 전체를 통해 명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전달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어떤 기대를 형성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신체를 평가

하게 된다(Collins, 1991).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련해 부모자녀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솔직한 감정표현의 기회는 외부에서 제시되는 외모관련 기준을 다각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수용한 외부의 기준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하게 된 신체상 및 자기 지각을 조절하게 할 수도 있다. 청소년의 자아가치감 지각에 대한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의 영향을 검토하므로써 청소년의 자아지각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과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체상(김경아, 2003; 김아날리아, 2006; 김혜원, 백화정, 1996; 서윤경, 2003; 이주아, 2005; 정승교, 박종성, 1997)이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고정자, 2003; 길애진, 1999; 박혜순, 2008; 신호식, 김근화, 2004)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신체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박경애, 2002; 우정숙, 1993; 이분옥, 1999; 이영미, 2004; 조지숙, 1992; Thelen, Powell, Lawrenu, & Kuhnert, 1992)했고,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아, 2003; 김혜원, 백화정, 1996; 정승교, 박종성, 1997). 여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체상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았으며 절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이분옥, 1999). 또한 신체상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되 그 관계가 여아 집단에서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었다(우정숙, 1993). 이처럼 성별에 따라 신체상 지각 등이 다르다면 신체상 지각이 자아 평가나 수용에

영향을 줄 때 성별에 따라 그 관계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이는 신체상이 자아지각에 주는 영향을 규명할 때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Deaux & Wrightman, 1988)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이 외모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경향에서 여학생들의 부정적 신체상 지각은 신체의 가시적인 특성과 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체에 대한 견해 및 관점의 형성에서 성별은 무엇보다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부모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고선주 등, 2004; 고정자, 2003; 박혜순, 2008; 신효식, 김근화, 2004)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가치감 간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이 신체상은 자기에 대한 평가 및 수용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신체상 및 자가지각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라 자기에 대한 수용과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며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기에 신체상이 성차가 있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성차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청소년기의 신체상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그리고 자아가치감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체상 지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요인이 청소년의 자기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청소년의 자아 형성에서의 성별화된 과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 형성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수 있고 긍정적 자아의 형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신체상,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자아가치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 청소년의 자아가치감에 대한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 중 남학생은 172명(47.1%), 여학생은 193명(52.9%)이었으며, 중학교 2학년은 184명(50.4%), 고등학교 1학년은 181명(49.6%)이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207명(63.9%), 대졸 이상이 89명(27.5%)이었고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146명(44.8%), 대졸 이상이 152명(46.6%)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32명(9.2%), 40대가 293명(84.4%), 50대가 17명(5.0%)이었고,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10명(2.8%), 40대가 270명(75.6%), 50대가 69명(19.3%)이었다. 가정의 소득은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인 84명(26.5%),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103명(32.5%),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인 69명(21.8%)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	변인	구분	사례수(%)
성별	남학생	172(47.1)	소득	100-200만원 미만	84(26.5)
	여학생	193(52.9)		200-300만원 미만	103(32.5)
학급	중학교 2학년	184(50.4)		300-400만원 미만	69(21.8)
	고등학교 1학년	181(49.6)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207(63.9)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146(44.8)
	대졸 이상	89(27.5)		대졸 이상	152(46.6)
어머니 연령	30대	32(9.2)	아버지 연령	30대	10(2.8)
	40대	293(84.4)		40대	270(75.6)
	50대	69(19.3)		50대	69(19.3)

2. 조사도구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Mendelson과 White(1982)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조지숙(1992)의 도구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외모신체상(6문항)과 건강신체상(3문항)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정말 그렇다’(1점), ‘다소 그렇다’(2점), ‘별로 그렇지 않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제시되었다. 외모신체상은 자신의 키나 몸무게, 얼굴 생김새 등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질문하였고 건강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나 건강에 대한 지각을 질문하였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외모신체상이 .71, 건강신체상이 .78이었다. 점수의 범위는 9-3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와 건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원래 문항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면을 측정하는 문항(9문항)을 선별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어쩌다 그렇다’(3점), ‘자주 그러는 편이다’(4점), ‘늘 그러는 편이다’(5점))로 측정되었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7이었고 평균은 29.81(6.75), 점수의 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자아가치감

자아가치감 척도는 박아청(2003)의 한국형 자

아정체감 문항 중 Crocker, Luhtanen, Cooper와 Bouvrette(2003)의 자아가치감 척도(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와 유사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존재 같다’, ‘나는 보잘 것 없는 존재 같다’ 등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이겐 값 1이상인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된 척도의 전체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한편 5점 리커트 척도(‘정말 그렇다’(1점), ‘그렇다’(2점), ‘그런 편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측정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7-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의 존재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자료조사는 서울경기지역내 남녀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 총 4개 학교에서 중학생(184명)과 고등학생(181명)의 남녀 36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각 학교의 보건 교사나 담임 교사의 도움을 받아 남녀 중고등학생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배부된 질문지의 응답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응답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t 검정,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5미만에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신체상,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자아가치감의 차이

남녀 청소년의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자아가치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2의 분석결과와 같이 첫째 성별에 따라 외모 신체상은 의미있는 차이($t_{361}=-3.97$, $p<.001$)가 있고 건강 신체상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외모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지만 건강에 대한 지각은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의미있는 차이($t_{364}=-2.69$, $p<.01$)가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더 높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부모에게 자유롭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소통이 더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가치감은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t_{355}=.14$, n.s.).

2. 남녀 청소년의 자아가치감에 대한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의 상대적 영향력

남녀 청소년의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른 자아가치감의 설명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독립변수간의 상관분석을 실

표 2. 남녀 청소년의 신체상,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자아가치감의 차이

변인	성별	N	M(S. D.)	t	df
신체상	외모신체상	남	14.55(3.29)	-3.97***	361
		여	15.92(3.34)		
	건강신체상	남	5.91(2.16)	-1.96	361
		여	6.32(2.0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남	165	28.56(6.60)	-2.69**	354
	여	191	30.61(7.29)		
자아가치감	남	166	26.66(5.72)	.14	355
	여	191	26.67(5.30)		

** $p < .01$, *** $p < .001$

표 3. 남녀 청소년의 신체상,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자아가치감의 상관관계

변인	외모신체상	건강신체상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외모신체상	1	.27***	-.15
건강신체상	.07	1	-.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22**	-.12	1

** $p < .01$, *** $p < .001$

우상단 : 남학생, 좌하단 : 여학생

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신체상, 건강신체상,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간의 상관계수는 $r = .30$ 이하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외모신체상, 건강신체상,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간의 상관계수도 $r = .30$ 이하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간의 상관성이 높지 않아 독립변인 간의 독립을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검토할 수 있다.

남녀 청소년의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른 자아가치감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신체상($\beta = -.36$, $p < .001$), 건강신체상($\beta = -.35$, $p < .00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beta = .21$, $p < .001$)은 자아가치감에 대하여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남학생의 자아가치감에 대하여 외모신체상의 설명력은($F(1, 159) = 45.93$, $p < .001$, $R^2 = .22$) 22%였고, 건강신체상이 포함되었을 때($F(2, 158) = 42.00$, $p < .001$, $R^2 = .34$) 설명력이 12% 증가하였으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포함되었을 때($F(3, 157) = 33.21$, $p < .001$, $R^2 = .38$) 설명력이 4%증가하였

표 4. 남녀청소년의 신체상,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른 자아가치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아가치감		F값(df)	R ²
			B	β		
남학생	1	상수	38.94		45.93 ^{***}	.22
		외모신체상	-.83	-.47 ^{***}	(1,159)	
	2	상수	42.57		42.00 ^{***}	.34
		외모신체상	-.69	-.39 ^{***}	(2,158)	
		건강신체상	-.97	-.36 ^{***}		
	3	상수	36.24			.38
		외모신체상	-.63	-.36 ^{***}	33.21 ^{***}	
		건강신체상	-.95	-.35 ^{***}	(3,15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19	.21 ^{***}		
여학생	1	상수	17.33		36.41 ^{***}	.1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30	.40 ^{***}	(1,187)	
	2	상수	26.55		31.01 ^{***}	.2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25	.34 ^{***}	(2,186)	
		외모신체상	-.48	-.30 ^{***}		

^{***} $p < .001$

다. 남학생의 자아가치감에 대하여 외모신체상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 건강신체상의 설명력이 높았다.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아가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beta = .34$, $p < .001$)과 외모신체상($\beta = -.30$, $p < .001$)이 자아가치감에 대하여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여학생의 자아가치감에 대해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F(1, 187) = 36.41$, $p < .001$, $R^2 = .16$)은 설명력이 16%였고 외모신체상이 포함되었을 때($F(2, 186) = 31.01$, $p < .001$, $R^2 = .24$) 설명력이 8%증가

하였다. 여학생의 자아가치감에 대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더 설명력이 높았고 다음 외모신체상의 설명력이 높았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더 개방적이고 외모신체상이 긍정적일수록 여학생의 자아가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가치감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학생의 자아가치감은 신체상 지각보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더 영향을 받지만 남학생의 자아가치감은 부모와의 관계요인보다 자신이 지각한 외모신체상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남녀학생의 자

아가치감의 지각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긍정적 요인이되 성별에 따라 부모 자녀간 관계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외모와 건강을 포함하는 신체상이 자아 수용, 자기의 가치 지각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되 여학생은 건강신체상은 관계없이 외모신체상만이 더 중시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IV. 논의 및 결론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생 1학년 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남녀 청소년의 자아가치감에 대한 신체상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의 관계를 살펴본 이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외모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부모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지만 건강신체상과 자아가치감은 다르지 않았다. 연구결과 중 외모신체상에 성차가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은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고(김경아, 2003; 김아날리아, 2006; 김혜원, 백화정, 1996; 서윤경, 2003; 이주아, 2005; 장성철, 송미현, 2004; 정승교, 박종성, 1997) 자신의 외모를 더 낮게 평가한다(임수진, 2002)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임경희(2005)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여성다운’ 신체에 대한 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높았다. 조사대상 중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는 약 14%에 불과했고 여고생중 약 68%가 성형

을 희망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내재화하는 정도도 높았다. 이처럼 여학생은 외모에 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기 외모를 더 엄밀히 평가하게 되어 외모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건강 신체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은데 이것은 외부에서 제시되는 신체관련 기준이 외모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에게 외모가 더 강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외모의 강조는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단, 자아가치감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은데 이는 자존감이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았던 연구들(김아날리아, 2006; 정희욱, 2003)과 일치한다. 외모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외모관리행동이나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고 외모 지각의 성차는 자기수용 및 가치지각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자아가치감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으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아가치감에서 외모상의 비중이 다를 가능성이 있고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부모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고선주 등, 2004; 고정자, 2003; 길애진, 1999; 박혜순, 2008; 신효식, 김근화, 2004)와 일치한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의사소통의 시도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른 실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남녀에게 다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부모자녀 간에 감정표현과 정보교

환이 솔직하고 자유스러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다면 이는 청소년의 자기 지각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외모신체상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 인데도 자아가치감은 성차가 없다는 점은 부모자녀 간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여학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남녀 청소년의 외모 신체상이 긍정적일수록 자아가치감이 긍정적이었으며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아가치감이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신체상 및 외모 만족이 자존감, 자아개념에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아날리아, 2006; 서운경, 2003; 임수진, 2002; 장귀현, 2002)를 지지하며 또한 자녀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긍정적으로 자기를 지각하고(고아라, 2008) 자아존중감이 높았다(신효식, 김근화, 2004; 이영숙, 김정옥, 2002)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남녀 청소년에게 있어 외모를 중심으로 한 신체적 요소와 부모자녀간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자기 수용과 자기의 가치 지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변화에 더 주목하는 청소년의 발달시기적 특성과 외모를 특히 강조하는 사회적 풍조는 청소년의 자기지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과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외모에 관한 획일화된 기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신체나 외모 등에 관한 자신의 내적 기준을 바람직하게 세우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이 때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가치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외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풍조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부모가 인식하고 부모자녀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남녀 청소년에게 외모와 신체건강에 대한 지각,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아가치감에 주는 영향이 달랐다. 자신에 대한 수용과 평가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적 요소와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이 모두 의미 있되 남학생은 자신의 신체적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학생은 부모자녀간 관계의 질이 더 우선적인 요소이었다.

이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자기수용과 평가에서 개인적 신체적 측면이 더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사회적 피드백에 의해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지각했는지라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과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지각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에게 외모가 더 강조되는 시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바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라 사회문화적 압력에서 비롯된 외적 영향이 약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고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 지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신체상이 자아가치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여학생은 외모 신체상만이 의미가 있고 건강 신체상은 설명력이 없는 반면 남학생은 외모 및 신체건강에 대한 지각이 자아가치감을 이해하는 데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에 따라 신체적 요소가 달리 작용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 결과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요인을 외모와 신체건강 및 신체적 재

능 등의 요소로 나누어 자존감과의 관계를 검토했을 때 신체 건강이나 능력보다는 외모 만족이 자아존중감과 더 높은 상관관계(장귀현, 2002)를 보였던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다수가 정상체중 이하 범위에 있는데도 여학생의 압도적 다수(85%)가 자신의 현재보다 더 마른 체형을 이상형으로 삼고(강혜자, 2003) 남학생들은 더 살찐 체형을 바라던 조사결과와도 일부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경우 자아가치감에서 신체건강보다는 외모 만족이 더 중시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외모지상주의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여학생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사된다. 여학생의 외모신체상과 자아가치감의 관계는 외모관리 행동이나 왜곡된 섭식행동에서도 성별로 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학생의 경우와 달리 남학생의 경우는 외모신체상과 건강신체상이 자기 지각에서 중요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 못지않게 외모신체상이 자아 지각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외모지상주의 경향이 여학생에게만 부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상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따른 자아가치감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므로써 성별에 따라 그 관계의 양상이 다르며 신체적 요소가 달리 작용함을 파악하였다.

외모에 집중하고 외모에 관한 외부적 기준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몰두하고 외모 지각

에 따라 자기존중감이 손상되는 일은 신체적 변화를 겪는 시기의 청소년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모에 관한 사회적 기대와 압력이 여학생의 외모 신체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되 자기수용과 자기 가치를 지각하는데 있어서는 외모 및 건강 신체상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더 관련임을 보여주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부모는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 자녀와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외모지상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단, 이 연구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특성에 있어서 개방성 요인만을 고려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의 다양한 특성 및 그 내용,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부모의 관점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면 부모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자 (2003). 신체상의 자기차이가 정서와 신체증상 및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55-374.
- 고선주, 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박숙희 (2004).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개인, 가족, 학교, 인터넷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3-26.
- 고아라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길애진 (1998). 한국 청소년과 재미교포 청소년 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 (2003). 아동과 청소년의 외모 및 신체만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날리아 (2006).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백화정 (1996). 남녀 대학생의 신체상에 관련된 태도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 89-103.
-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 (2002). 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혜순 (2008). 청소년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성적 성숙 이해도 및 이성교제관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윤경 (2003).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향숙, 장윤옥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5), 189-202.
- 신효식, 김근화 (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7(2), 47-58
- 우정숙 (1993). 아동의 신체상과 섭식행동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일영, 이정렬, 임지영, 김순애, 김영옥, 장성옥, 장효순, 조갑출, 한금선, 한명수, 현명선 (1997). 학령기 비만아동의 신체상 관련요인 분석. 간호학 탐구, 6(2), 92-121.
- 이계원 (1993). 청소년의 신체상이 자기 만족, 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분옥 (1999). 초등학생의 신체상에 따른 절식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정상아와 고도 비만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2004). 아동의 체형 지각과 신체상 지각에 따른 부정적 정서. 대한가정학회지, 42(8), 133-145.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5). 부모 간 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이영숙, 김정옥 (200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주아 (2005). 아동기의 외모만족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 임경희 (2005). 신체이미지수용과 여학생의 외모가꾸기. *보건과 사회과학*, 17, 107-132.
- 임수진 (2002).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귀현 (2002). 여고생의 신체상과 자기 존중감 및 비행 충동성간의 관계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철, 송미현 (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 115-133.
- 정승교, 박종성 (1997). 여중생의 체중조절 실태, 비만도 및 신체상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4(2), 171-184.
- 정희욱 (2003).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횡단연구: 전라남도 지역의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1(3), 451-464.
- 조지숙 (1992).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민우회 (2006). *함께 가는 여성*. 서울: 하우
- 한중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ams, G. R, & Fitch, S. A. (1982). Ego stage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 Cross-sequenti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574-583.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Cash, T. F., Cash, E. W., & Butters, J. W. (1983). Mirror, mirror, on the wall: Contrast effects and self-evaluat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351-358.
- Collins, M. E. (1991). Body figure perceptions and preference among preadolescence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0, 199-208.
- Crocker, J., Brook, A. T., & Niiya, Y. (2006). The pursuit of self-esteem: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6), 1749-1771.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S.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94-908.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New York: Scott Foresman and Co.
- Luckmann, J, & Sorensen, K. C. (1974). *Medical-surgical nursing*. W.B. Saunders Co.
- Mendelson, B. K., & White, D. R. (1982). Development of self-body-esteem in overweight youngst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90-96.
- Rogers, D. (1985). *Adolescent and youth*(5th ed). N.J.: Prentice-Hall.
- Thelen, M. H., Powell, A. L., Lawrenu, C, &

Kuhnert, M. (1992). Eating and body image concerns amo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1-46.

1 차원고접수 : 2009. 10. 15.

수정원고접수 : 2009. 11. 27.

최종게재결정 : 2009. 12. 01.

Adolescents' sense of self-worth according to their body image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Lee, Young-Mi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Min, Ha Yeoung

Dept. of Child Study
Catholic Univ. of DaeGu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sense of self-worth to their body image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365 adolescents (184 middle school students and 181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Kyoung-gi province by questionnaire and were analyzed by t-test and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irls' perception of their physical appearance was more negative than boys' but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their physical health. Girls communicated with their parents more openly than boys did. Second, the more adolescents perceived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health positively and communicated with their parents openly, the more positive the adolescents' sense of self-worth. Thir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rceptions of physical appearance was the stronger predictor of boys' sense of self-worth, however, the opennes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as the stronger predictor of girls' sense of self-worth. Perceptions of physical appearance and physical health were significantly predictive to boys' sense of self-worth, however, perceptions of physical appearance rather than physical health was significantly predictive of girls' sense of self-worth.

Key words : sense of self-worth, body imag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